



전주매일



'전북에 희망을, 청년에게 기회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새만금 현장에 찾아 전북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으며,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 등 5개 대학 학사·석·박사 과정 학생 22명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현대자동차 신승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정부의 종합지원 계획을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새만금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현장에서 미래 개발 청사진을

김민석 총리, 새만금서 도내 대학생들과 현장간담회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지역 청년들에게 새 기회 제공 규제혁신·인프라 확충·정주여건 개선 적극 추진"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지역발전과 청년의 미래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대차의 투자는 새만금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총리는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머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과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대차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채용계획,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새만금의 중장기 개발 방향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현대차 투자의 당사자가 될 학생들과 청년 여러분을 만나며 정부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새만금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을 기업과 인재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만호 기자



지난 19일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북 청년 새만금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도내 대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여름철 가축 폭염 피해 최소화... 도, 예비비 16억원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축산농가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 시작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8월에는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 폐사율 및 생산성 저하 등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추가 지원... 닭·오리·돼지 농가 우선 공급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비 8억원 외에 예비비 16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확보된 예산은 폭염에 취약한 닭·오리·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되며,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과거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사육밀도가 높은 농가 등 폭염 취약 사업을 통해 농가의 피해 예방과 냉방시설과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시군 재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리플릿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올해 폭염 대응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128억원,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16억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4억원 등 총 1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냉방기, 쿨링패드, 환풍기 등 폭염 대응 장비 지원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농가의 피해 예방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9월 30일까지는 축산분야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와 상황 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도내 농촌 주민 생활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도,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4대 추진전략·12대 중점과제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복지·의료·생활서비스 제공 주체가 부족해지는 농촌 현실에 대응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직접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체계를 구축해 농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가 수립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복지·생활서비스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의원과 식당, 세탁소 등 기본 생활서비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촌공동체가 만들고 지역사회가 채우는' 기반이 되는 '농촌사회'를 비전으로 △보편적 생활의 보장 △공공적 정책 해소 △주민의 주도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육성과 현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9월 30일까지는 축산분야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와 상황 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여형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사회서비스 활동가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기획·운영을 담당할 핵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전문가와 청년, 도시민 등의 재능기부와 교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농촌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농촌 지역의 거리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의료·생활지원 기능이 결합된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복합 이동 서비스 전담행(行) 사업을 통해 생필품 구매와 사회복지·의료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순회 차량을 운행하고, 이동편의를 위한 수요 응답형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생활물류와 돌봄이 연계되는 안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계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장은 "전국 최초 광역단위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농촌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해 기본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만호 기자

126년 역사의 군산항
군산새만금항신항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비안도, 두리도, 군산새만금항신항

군산시